

김광식 교수 특별기고

조·태분규 50년, 미완성의 불교개혁

# ‘화합과 발전’ 위한 역사의 교훈

올해는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 이후 조계종·태고종 간의 분규가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다. 분규는 50년 동안 이어지며,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하락 등을 가져왔다. 분규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 되지 않은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픔’ 들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 ◎정화인가, 법난인가, 분규인가?

1954년 5월 20일, ‘절에 있는 대처승은 절을 떠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담화)로 인해 불교계는 세칭 비구승과 대처승으로 나뉘어 조계종단의 운영권, 관리권, 승려의 자격을 두고 무려 8년간이나 내분을 치렀다. 내분이 일단락이 된 1962년 4월, 통합종단이 출범하였으나, 6개월 후 분규는 재연되었다. 그리하여 대처승측이 태고종을 설립한 1970년 5월까지 그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갈등은 완전 해소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그 불씨는 살아 있다. 이에 이러한 내용의 사실, 사건, 움직임, 정황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지금껏 비구승측인 조계종단에서는 불교정화, 정화불사, 정화운동으로 칭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태고종에서는 법난으로 부른다. 한편 당시 사회, 언론에서는 불교계의 분규라고 지칭하였다. 이렇듯이 그 정황의 명칭은 아직도 공감대가 없다. 이는 그 사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현실인식이 극단적인 다툼에서 나왔다.

정화, 법난, 분규는 그 사실과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미진함이 있다. 우리는 비구승과 대처승, 혹은 조계종단과 태고종단도 당시 불교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중심·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교개혁’의 관점이 있었음을 상기할 수 있다.

### ◎왜 일어났는가?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거시적으로 보면 그 원인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후유증이었다.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하자, 불교도 식민지불교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에 불교는 종지, 종풍, 신령, 운영,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일제의 간섭을 받아, 불교계 전 분야에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당시 비구승측은 승려의 결혼은 파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불교청년들에서 시작된 승려의 결혼은 해방직전에는 승려의 대다수가 수용하였다.

문제는 1945년 8·15해방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 해방공간 불교계는 식민지 불교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인식하고, 그를 위한 불교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이행을 둘러싼 보수, 진보세력 간의 이

해관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갈등의 초점중 하나가 대처승들이 종단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불교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논란이었다. 그 갈등은 첨예화되어, 종단 집행부를 부인하고, 별도의 총무원을 차리기도 하였다. 결국 불교개혁은 중도화하였는데, 당시 수좌들은 불교혁신연맹에 가담하였다.

이처럼 교단 차원의 불교개혁이 성사되지 못하자, 수좌들은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테면 이성철, 이정답이 주도한 봉암사결사와 송만암이 주도한 고불총립이다. 그러나 이 개혁은 6·25전쟁으로 인해 단절되었다.

요컨대 해방공간에서의 식민지 불교의 극복, 불교개혁의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 이에 교단개혁을 구상하는 승려들

불교정화를 이루려고 새로운 종헌질서를 내세웠다. 그에 반해서 대처승은 종단의 안정을 주장하고, 비구승들에게 사찰 40여개를 제공하고, 비구승과 교화승의 공존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구승측은 새 종헌에 의거 별도의 종단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승만대통령은 비구승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 주는 유시를 지속적으로 발표, 종단 집행부인 대처승 측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비구승, 대처승 양 진영은 자신의 주장만을 개진하였기에 중도적인 흐름은 존립하기 어려웠다. 그들의 논리에서 민감한 부분은 승려의 자격문제였다. 요컨대 비구승측은 결혼한 승려는 승려로 볼수 없다는 것이었고, 대처승측은 대처승도 교화승으로서 정식 승려 자격이 있다고 하였

## 일제하 전통계승·대중화 조류 형성

## 해방·전쟁 이후 비구·대처 갈등 증폭

의 불만은 높아갔다. 이때 불교계 내부의 모순을 부채질한 촉발제가 농지개혁이었다. 1950년 5월에 단행된 개혁은 기존 절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농민에게 넘어주게 한 혁명적인 변화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절의 농지에서 나온 소작료가 절의 유지, 운영의 주된 재원이었다.

이런 변동은 사찰의 재정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수행 장소인 선방의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아 왔던 수좌들은 농지개혁으로 인해 수좌들은 이전 불만에서 새로운 과제인 생존 유지, 수행공간의 확보라는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수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종정인 송만암에게 건의서를 내고, 송만암도 그를 인정하여 종단 집행부에 처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의지부족, 여건 미약, 개혁의 자제 미흡 등이 결합되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승만의 유시가 내려졌고, 그 유시는 폭발적인 위력을 갖고 전 불교계를 강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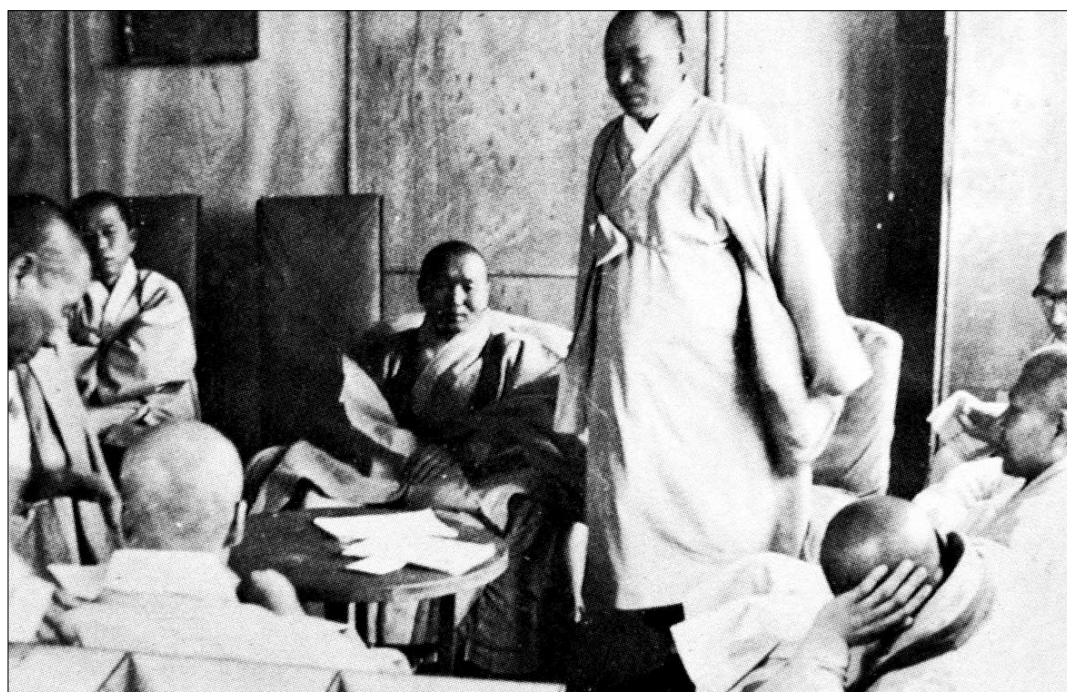
### ◎전개과정

이승만의 유시가 내려지자, 비구승들은

다. 그러나 1955년 2월에 가서는 양측이 승려자격 8대원칙을 합의하였다.

이에 그 자격을 갖춘 승려들이 모임을 갖고 새로운 종헌, 집행부를 출범시키고 점차 불교개혁을 추진하면 별 문제는 없었다. 마침내 공권력이 적극 개입한 사찰정화대책위원회가 등장하여, 양측 대표가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그러나 합의가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1955년 8월 12일 조계사에서 비구 측 중심의 전국승려대회회를 기점으로 종단의 주도권은 비구 측으로 넘어 갔다. 이에 전국의 수천 사찰에서 대처승들은 가족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었다. 간혹 대처승은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찰에서 쫓겨났다. 이즈음 전국 사찰에서는 비구승, 대처승 간의 치열한 폭력이 전개되었다.

이 사건은 사법부로 넘어간다. 이로부터 전국의 재판부에서는 사찰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판결이 지속되었다. 재판을 하기 위한 사찰 재산의 매각, 사찰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에 동원이 나타났다. 이에 불교계 전체가 곤궁하다는 우려, 4·19, 5·16 이후 군부정권의 강력한 통



◊1962년 통합종단을 완성한 비구, 대처 양측 대표 스님들이 종단 운영방향 등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제라는 분위기에 불교재건위원회가 등장하였다. 그 결과 1962년 4월, 양측이 합의한 통합종단이 출범하였으나 몇 개월 가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1970년 태고종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양측의 갈등, 대립, 폭력, 재판, 재산 매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 ◎유산과 후유증

이 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을 거시적으로 보면 식민지 불교의 극복이라는 과제의 해결 시도, 한국불교 전통에 대한 정체성 논의, 사찰 및 불교 문화재의 정비, 불교개혁의 당위성의 공감, 불교가 나아갈 방향의 확인 등 긍정적인 면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년 간 전개된, 노정된 슬픈 모순은 실로 간단치 않았다. 우선 불교적인 정신과 방법이라는 근원을 뒤흔들게 하였. 즉 목적과 방법이 일치되지 않았기에 불교라는 종교성을 파탄케 하였다. 이로부터 불교의 폭력성이 고정관념으로 따라다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불교발전, 불교개혁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점이 다. 당시 기독교의 성장과 불교의 사회 위상 하락의 요인이 여기에서 왔다. 또한 승려들의 교육 부족, 질 저하, 수행정신의 퇴보 등 문제점도 제기됐다.

## ‘이승만 유시’ 소송·폭력의 기폭제

## 종교성 파탄·승단 타락 등 악순환

## “진리구현은 목적·수단 일치로 가능”

### ◎전망

불교계가 이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정면으로 인식할 때만이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고귀한 성찰의 대상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생각해 볼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교의 진리와 이를 구현하는 현실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를 좁히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불교개혁이나 종단 개혁이나 칭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석가세존의 입멸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과제이다. 불교를 단순히 진리의 가르침으로만 인식해서는 불교의 토착화, 불국토 건설, 불교대중화는 불가능하다. 불교적 이상과 현실을 연결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그 토착화, 연결노력은 불교적인 가치와 방법에 의해서 시도되어

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 행동은 불교의 파멸이 있을 뿐이다.

불교의 목적과 수단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은 지난 과거의 제반 역사와 사실을 정면으로 대하려는 치열한 역사정신을 키워 나가야 한다. 지금껏 불교계에서는 역사, 현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한 흐름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반 불교적이다. 현실 역사 현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정법이다. 이와 같은 진리와 현실의 간격 좁히기, 불교적 가치와 수단이 함께 가려야 하는 의식과 행동이 여기저기서 움트기를 기대해본다.

<부천대 교수>

#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h2>왕 암 사</h2> <p>주 지 자 성 신도일동</p> <p>충북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1구 425-1번지 TEL : 043)298-6584</p>	<h2>광 덕 사</h2> <p>주 지 일 봉 신도일동</p> <p>충북 청주시 용담동 120-1번지 TEL : 043)258-3282</p>
<h2>약 사 암</h2> <p>원 주 강 청정심 신도일동</p> <p>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4-11번지 TEL : 043)222-0155</p>	<h2>현대불교 충북지사</h2> <p>현대불교 충북지사장 일 봉 청주, 청원 사암연합회수석부회장</p> <p>TEL : 043)258-3282 H·P : 011-459-3282</p>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 팔공산 동화사

---

**조 실 진 제**

주 지 지 성	금 당 선 원
부주지 진 담	선원장 지 환
총 무 재 윤	
기 획 정 관	
교 무 현 천	승 가 대 학
재 무 상 원	강 주 해 월
사 회 법 률	
포 교 해 경	
호 법 선 광	대 중 일 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 053)982-0101 팩스 053)985-4405  
홈페이지 www.donghwasan.net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뒤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 복지법인 부처님 마를 자광원에서 경계를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의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지손들에게는 호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력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자하고는 무관
- ◆ 경 원 :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 본 건물→방규포(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방규, 광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 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